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5. 11. 02. ~ 11. 08.

전남농업정보

58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6년 마늘 · 양파 재배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김치, 중국 수출길 곧 재개 전망!

이 지사, 中 청다오에서 전남 농수산물 판로 확대 모색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소면적 재배작물 농산물인증 시비기준 마련

수경재배가 가능한 연녹색 애호박 품종선발

보리쌀도 칼라시대, 해남지역에 재배단지 조성

정책동향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로 품질 높인다

2016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상황실 운영

해외 농업정보

네덜란드, 유기농식품 전문 매장 확대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11. 2.)



전라남도
JeollaNamdo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8

- 기압골의 영향으로 7~8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음.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2도, 최고기온: 11~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1~4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11

- 마늘, 2016년산 재배면적 7% 증가 전망
- 양파, 재배면적 평년보다 감소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12

▶ 식량작물 : 쌀

- 쌀 : 2015년산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3만 8,500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8.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엽근채소 : 배추·무·감자

- 배추 : 출하량 증가로 평년(5,199원/10kg)보다 낮은 3,500~4,500원으로 전망
- 무 :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 및 전월보다 상승한 8,500~10,500원(18kg당) 수준으로 전망
- 감자 : 평균 도매가격은 18,000~23,000원으로 전월(20,683원/20kg)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13

- ▶ 보성군, 감자 가공제품 연사회 개최
- ▶ 곡성 미실란 이동현 대표, 대산농촌문화상 수상
- ▶ 제철 맞은 햇 생강 수확 한창!
- ▶ 신안군 양파 기계정식 연사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18

- ▶ 김치, 중국 수출 길 곧 재개 전망!
- ▶ aT, 美 명문요리학교 CIA와 한국식품 요리 경연대회 열어
- ▶ 한국 외식업체, 베트남 외식시장을 공략하다!
- ▶ 이 지사, 中 칭다오에서 전남 농수산물 판로 확대 모색

❁ 농업기술 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25

- ▶ 소면적 재배작물 농산물인증 시비기준 마련
- ▶ 수정재배가 가능한 연녹색 애호박 품종선발
- ▶ 친환경축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이용 확대 해야
- ▶ 보리쌀도 칼라시대, 해남지역에 재배단지 조성
- ▶ 영유아용 '유산균 발효 곡물스낵'이 나왔다.
- ▶ 알이 크고 수량 많은 땅콩 '다안' 개발
- ▶ 세계 최초 곤충의 심리치유 효과 밝혀
- ▶ 최적의 2모작 재배 조합 발굴해 농가 소득 높인다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36

- ▶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로 품질 높인다
- ▶ 2016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상황실 운영
- ▶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 ▶ 네덜란드, 유기농식품 전문 매장 확대
- ▶ 대만, 식품관리규정 강화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2.(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건조한 기후로 인한 우려로 상승했던 가격이 강우 예보로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거래 분위기가 다소 식으면서 하락 마감함. 거래자들은 주말에 내린 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밀 작황 보고를 대기하고 있으며, 이전 보고서의 불량 등급이 하락세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수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지속적인 옥수수 풍작 소식은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밀 하락의 영향이 옥수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USDA의 주간 보고서에 앞선 거래자들의 미국 옥수수 수확은 대략 85%가 완료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밀, 옥수수 하락과 기술적 매수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지속적인 중국의 대두 수요는 중국 경제의 지연 성장과 다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로부터 보호 받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제 민영 수출로부터 중국에 12만 톤의 대두가 수출 된 것으로 USDA는 보고함.

▶ 「우리 생활 속의 식품영양성분」 농업과학관 특별전시

○ 목 적

-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가치와 농촌진흥청 이미지 제고

○ 전시개요

- 주 제 : 『우리 생활 속의 식품영양성분』
- 기 간 : 2015. 10. 27. ~ 11. 9. (2주간)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특별전시관

○ 내 용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의의/역사/생산과정 및 생활 속의 활용
- 정부 정책/국민 식생활/건강 관리/교육/IT 융복합 속의 식품영양성분
- 체험 : 앱, 게임, 식생활 진단, 채소 풍선 색칠하기 등
- 전시공간 : 80m²

○ 기대효과

- 국민들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국가표준식품성분 DB의 활용성 증대

▶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KOFEX 2015)

- 행 사 명 :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KOFEX 2015)
- 일 시 : 2015. 11. 18.(수) ~ 11. 21.(토) 10:00~18:00
- 장 소 : 코엑스 A4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전시회, 시연 및 체험, 부대행사, 이벤트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1. 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	1주일전 (10/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량 작 물	쌀(일반계)	20kg	37,000	37,000	39,680	41,200	41,640	↓10.2	↓11.1
	콩(백태)	35kg	144,400	141,000	137,000	137,000	200,383	↑5.4	↓27.9
	고구마(밤)	10kg	21,800	21,800	22,520	19,800	21,773	↑10.1	↑0.1
	감자(수미)	20kg	25,000	24,600	24,600	20,000	26,207	↑25.0	↓4.6
채 소 류	가을배추	1kg	390			418	415	↓6.7	↓6.0
	양배추	10kg	3,900	5,000	6,120	4,600	6,687	↓15.2	↓41.7
	시금치	4kg	8,200	8,200	10,680	8,650	9,073	↓5.2	↓9.6
	청상추	4kg	12,600	12,600	11,440	13,300	13,217	↓5.3	↓4.7
	오이(다다기)	10kg	20,667	15,667	18,667	21,889	19,250	↓5.6	↑7.4
	애호박	8kg	15,800	14,200	10,720	17,750	19,637	↓11.0	↓19.5
	토마토	10kg	17,200	19,600	23,880	19,850	30,853	↓13.4	↓44.3
	가을무	20kg	9,300			9,200	9,200	↑1.1	↑1.1
	당근(무세척)	20kg	27,600	28,800	34,720	23,350	39,013	↑18.2	↓29.3
	건고추(화건)	60kg	816,000	816,000	830,000	860,000	940,000	↓5.1	↓13.2
	풋고추	10kg	26,200	24,000	25,200	51,300	46,610	↓48.9	↓43.8
	마늘(난지)	10kg	55,000	55,000	47,200	33,450	36,250	↑64.4	↑51.7
	양파	20kg)	28,600	28,600	28,000	10,400	17,893	↑175.0	↑59.8
	대파	1kg	1,670	1,580	2,004	1,115	1,594	↑49.8	↑4.8
	파프리카	5kg	12,800	14,600	19,560	27,900	30,167	↓54.1	↓57.6
	방울토마토	5kg	10,200	10,000	13,520	10,600	17,020	↓3.8	↓40.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	1주일전 (10/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과일류	사과(홍로)	10kg	28,000	28,000	37,573		29,733		↓5.8
	배(신고)	15kg	38,000	37,600	42,840	28,400	35,080	↑33.8	↑8.3
특용자재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20,000	545,933	↑1.9	↓2.9
	들깨	45kg	418,000	418,000	422,000	410,500	345,033	↑1.8	↑21.1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8,520	7,000	8,120	↑17.1	↑1.0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24	7,740	7,541	6,744	6,502	↑14.5	↑18.8
	돼지고기(냉장)	100g	1,746	1,939	2,021	1,759	1,581	↓0.7	↑10.4
	닭고기	1kg	5,136	5,006	4,867	5,189	5,600	↓1.0	↓8.3
	우유	1리터	2,551	2,547	2,547	2,546	2,375	↑0.2	↑7.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1. 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A)	전주가격 (B)	전년동기 (C)	가격 비교		등 락 (%)	
					A-B	A-C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44 천원	6,020 천원	4,651 천원	-276 천원	1,093 천원	↓ 4.6	↑ 23.5
	거세	6,064 "	6,689 "	5,460 "	-625 "	604 "	↓ 9.3	↑ 11.1
송아지 (6~7월)	암	2,575 "	2,668 "	1,942 "	-93 "	633 "	↓ 3.5	↑ 32.6
	수	2,891 "	3,263 "	2,512 "	-372 "	379 "	↓11.4	↑ 15.1
육우(600Kg)		3,213 "	3,335 "	3,258 "	-122 "	-45 "	↓ 3.7	↓ 1.4
젖소수송아지(7일령)		307 "	316 "	26 "	-9 "	281 "	↓ 2.8	↑1080.8
돼지(110kg)		328 "	319 "	372 "	9 "	-44 "	↑ 2.8	↓ 11.8
육계(원/kg)		1,151 원	1,331 원	1,706 원	-180 원	-555 원	↓13.5	↓ 32.5
계란(원/특란10개)		1,112 "	1,153 "	1,308 "	-41 "	-196 "	↓ 3.6	↓ 15.0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0 "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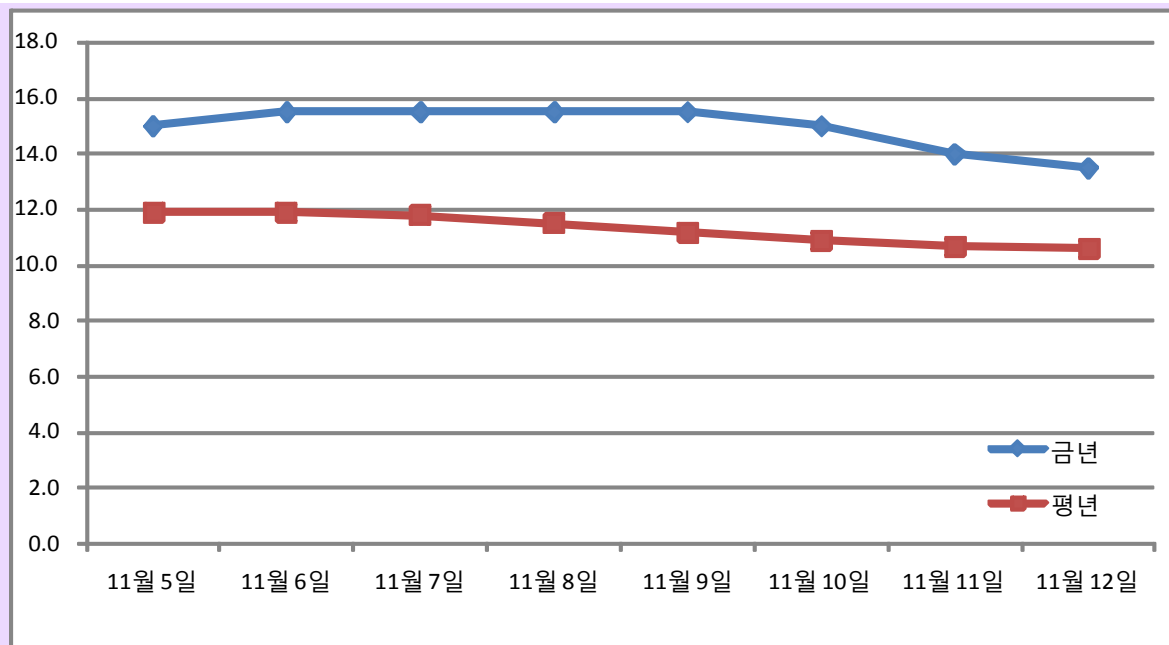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5.1	11.4	3.7	18.3	17.1	1.2	12.0	6.7	5.3	1.8
11월 5일(목)	15.0	11.9	3.1	20.0	18.1	1.9	10.0	6.8	3.2	1.2
11월 6일(금)	15.5	11.9	3.6	19.0	17.9	1.1	12.0	6.9	5.1	1.4
11월 7일(토)	15.5	11.8	3.7	18.0	17.7	0.3	13.0	7.0	6.0	1.8
11월 8일(일)	15.5	11.5	4.0	18.0	17.1	0.9	13.0	6.9	6.1	2.1
11월 9일(월)	15.5	11.2	4.3	18.0	16.6	1.4	13.0	6.8	6.2	2.0
11월 10일(화)	15.0	10.9	4.1	18.0	16.2	1.8	12.0	6.5	5.5	2.1
11월 11일(수)	14.0	10.7	3.3	17.0	16.0	1.0	11.0	6.3	4.7	2.1
11월 12일(목)	13.5	10.6	2.9	17.0	15.7	1.3	10.0	6.1	3.9	1.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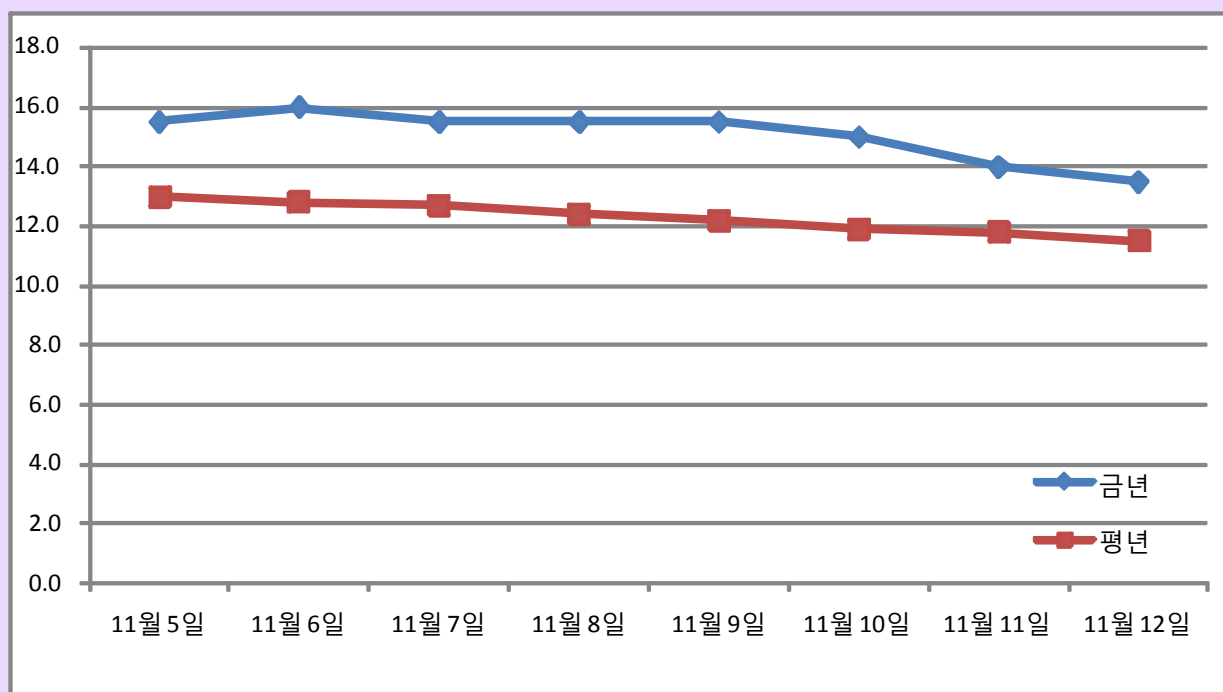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5.3	12.4	2.9	17.6	17.3	0.2	13.0	8.5	4.5	1.6
11월 5일(목)	15.5	13.0	2.5	20.0	18.2	1.8	11.0	8.8	2.2	1.3
11월 6일(금)	16.0	12.8	3.2	19.0	18.0	1.0	13.0	8.8	4.2	1.5
11월 7일(토)	15.5	12.7	2.8	17.0	17.8	-0.8	14.0	8.7	5.3	1.6
11월 8일(일)	15.5	12.4	3.1	17.0	17.3	-0.3	14.0	8.6	5.4	2.0
11월 9일(월)	15.5	12.2	3.3	17.0	17.0	0.0	14.0	8.4	5.6	1.7
11월 10일(화)	15.0	11.9	3.1	17.0	16.6	0.4	13.0	8.1	4.9	1.7
11월 11일(수)	14.0	11.8	2.2	16.0	16.5	-0.5	12.0	8.0	4.0	1.7
11월 12일(목)	13.5	11.5	2.0	16.0	16.2	-0.2	11.0	7.8	3.2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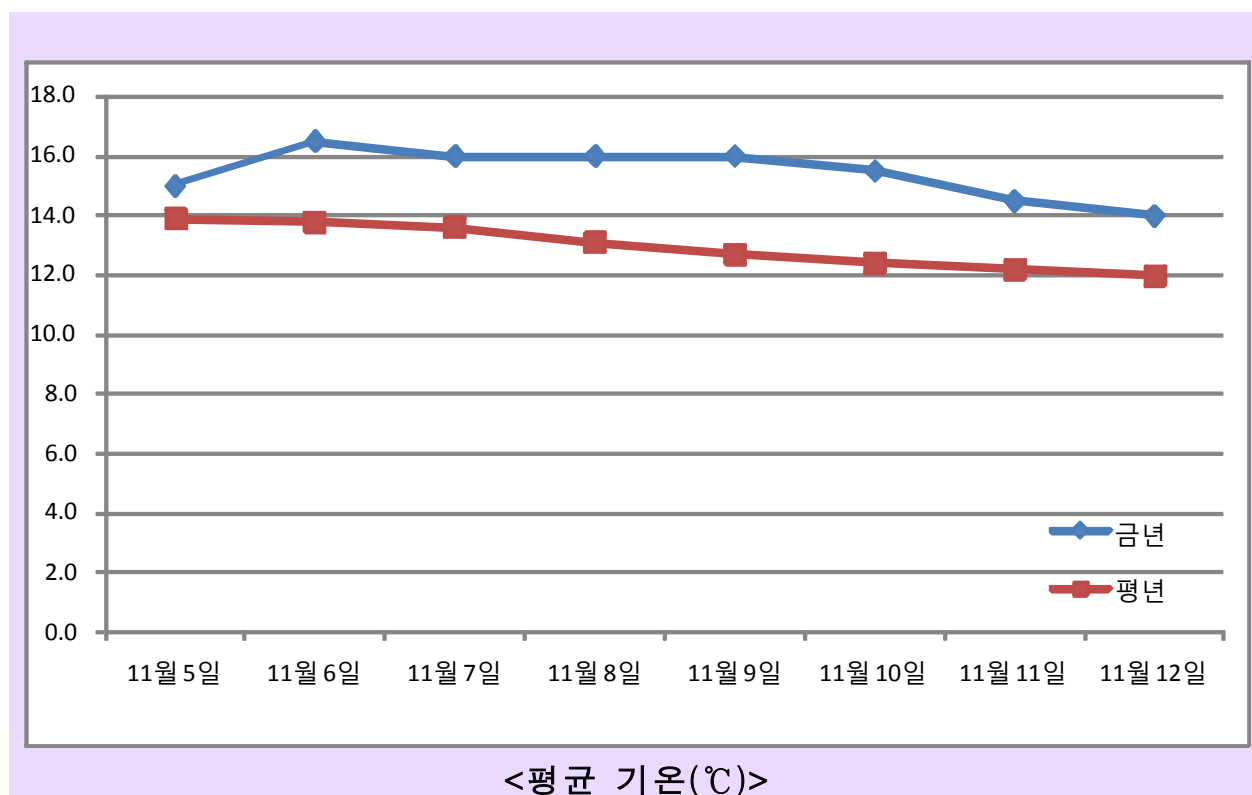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5.6	13.1	2.5	17.1	16.8	0.3	14.1	10.0	4.1	1.5
11월 5일(목)	15.0	13.9	1.1	18.0	17.8	0.2	12.0	10.6	1.4	1.2
11월 6일(금)	16.5	13.8	2.7	18.0	17.5	0.5	15.0	10.6	4.4	1.5
11월 7일(토)	16.0	13.6	2.4	17.0	17.3	-0.3	15.0	10.5	4.5	1.5
11월 8일(일)	16.0	13.1	2.9	17.0	16.8	0.2	15.0	10.1	4.9	1.7
11월 9일(월)	16.0	12.7	3.3	17.0	16.4	0.6	15.0	9.7	5.3	1.4
11월 10일(화)	15.5	12.4	3.1	17.0	16.0	1.0	14.0	9.3	4.7	1.6
11월 11일(수)	14.5	12.2	2.3	16.0	15.8	0.2	13.0	9.2	3.8	1.6
11월 12일(목)	14.0	12.0	2.0	16.0	15.6	0.4	12.0	8.9	3.1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재배 동향

마늘 · 양파 재배 동향

□ 마늘, 2016년산 재배면적 7% 증가 전망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5년산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전년 대비 2%, 난지형이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마늘 가운데 남도종은 5% 내외 증가하나, 대서종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업관측센터 조사치를 적용한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약 22,100ha로 전년보다 7%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 재배면적 평년보다 감소 전망

- 2016년산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1만 8,111ha로 2015년산과 비슷하며, 평년보다는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내년산 조생종 양파의 재배의향은 산지유통인 계약재배가 늘어나 전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전년보다 27%, 전남이 1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2015년산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산 양파의 가격은 높았으나,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농촌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식량작물 : 쌀

○ (쌀)

-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20만 톤 시장격리로 수확기 시장공급 가능물량이 전년대비 0.3% 줄어들어 쌀값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나 단경기 쌀값이 20kg당 3만9,939원으로 4.5%의 역계절 진폭이 발생하였고, 이월재고량은 전년대비 54.7% 증가가 예상되어 가격 하락요인이 크다.
- 2015년산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3만 8,500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8.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민간의 비매입능력 확충에 의한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엽근채소 : 배추 · 무 · 감자

○ (배추)

- 11월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5,199원/10kg)보다 낮은 3,500~4,500원으로 전망 된다.

○ (무)

- 11월 무 상품 18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 및 전월보다 상승한 8,500~10,5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10,257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 (감자)

- 11월 수미 상품 2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18,000~23,000원으로 전월(20,683원/20kg)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상품성이 양호한 전북, 경남지역 가을 햇감자가 출하되는 중순부터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보성군, 감자 가공제품 연사회 개최

– 감자 부가가치 향상 모델 구축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28일 득량면 오봉리 가공사업장에서 이용부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자 가공제품 연사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사회는 감자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종합적인 관리로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감자 생산 가공 유통 일관체계화 시범사업’의 결과물로서 보성군은 감자 재배단지와 가공사업장의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했다.
- 이날 감자 전분, 떡, 동그랑땡 등 감자를 활용한 제품 뿐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가공기자재를 활용한 조청, 식혜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김경옥 가공사업장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가공기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농·특산물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가공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성 농·특산물의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용부 군수는 “FTA에 대응하여 다양한 농·특산물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의 품질고급화에 노력하는 등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감자재배 면적은 930ha, 200억원의 조수입으로 보성군 조수입 순위 12위의 대표적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명성은 있으나, 유통과정에서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포전 거래가 전체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의 이득은 중간 상인이 얻고 있어 감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 산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출처 : 보성군

■ 곡성 미실란 이동현 대표, 대산농촌문화상 수상

-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양재동) 그랜드홀에서 곡성군에 위치한 이동현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 대표가 제24회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기술부문)을 수상했다.
- 수상자인 이동현 대표는 박사농부로서 꾸준한 우리 쌀 연구를 통해 독자적 발아현미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과 산업화로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원료곡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곡성읍 신기리, 장선리, 겸면 마전리에 친환경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고품질 관리로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산·관·연·농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공이 높게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이동현 대표는 “이번 수상에 더욱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쌀로 농업의 희망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수상소식을 접한 기술센터 김인수 소장님은 “미실란 발아현미는

쌀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고 있는 창조 농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세계로 진출해 곡성의 쌀 산업 발전에 전인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대산농촌문화상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으로 지난 1991년 제정됐으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앞장 선 인사를 매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출처 : 곡성군

■ 제철 맞은 햇 생강 수확 한창!

- 바닷바람 맞은 햇생강 수확에 농가 바쁜하루

- 신안군 지역특화작목인 생강이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다.
- 10월 24일 자은면을 시작으로 신안군 생강농가들은 생강수확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신안군 생강재배 면적은 약 10ha로 200여톤의 생강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생강을 수확하고 있으며 수확된 생강은 Kg당 4,000원에 계약되어 6억 5천만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 마늘,양파를 대체하여 생강을 재배했던 농가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찬바람 부는 환절기에 감기 예방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생강차는 커피를 대신한 겨울 건강차로 으뜸이며, 김장김치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 양념재료이다.
- 신안군에서 생산된 생강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대체소득작목 생강재배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생강재배를 위하여 파종 시 짝을 띄워 옮겨심어 생강 발아율을 높이고 관수 및 복주기로 단위면적당 2,000kg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는 생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고품질 생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 신안군 양파 기계정식 연사회 개최

- 양파 생력기계화로 노동력 76%, 생산비 51%절감!
- 신안군은 지난 28일 지도읍에서 양파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 및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기계정식 연사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연사회는 양파 재배에서 전 작업의 41%를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확과 정식작업에 노동력의 75.4%가 집중되는 가운데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인력수급난이 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ha의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양파 기계화재배는 파종, 두둑형성, 비닐피복,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를 통해 관행재배 대비 노동력을 76% 절감할 수 있다.
- 특히 기계정식만으로도 인력정식에 비해 뿌리가 조기 활착되어 월동률을 높이고 수확량을 25% 증대시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신안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육묘상자, 톤백시스템 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기계화를 2018년까지 500ha로 확대 할 계획이다
- 신안군농업기술센터장(강을원)은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파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김치, 중국 수출 길 곧 재개 전망!

-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김치 對중국 수출 재개 관련 화두를 꺼내시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조속히 내부 절차를 완료해 한국산 김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김치 수출 위생기준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래, 중국은 지난 2월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중국내부 및 WTO 회원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는 우리나라가 요청한대로 CODEX 기준에 의거,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진행 중인 이번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기준 개정은 식약처가 김치에 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며 현재는 중국 국내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aT, 김치연구소, 김치업계 등과 함께 김치수출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중국 수출대책 수립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 지난 6월에는 중국 현지(북경)에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현재는 중국 현지인 중심의 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중화권 김치 심층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지난 6월 이후 김치수출업계에 대해 대중국 수출절차 및 시장 상황,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등 업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 업계에서는 이에 발맞춰 CCIC(중국검험인증그룹)을 통해 중국 측에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등 사전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일부 업체는 고시발효 즉시 빠르면 연내라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측 바이어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4일 광주에서 열린 '세계김치축제'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김치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고, 중국 위생기준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대중국 김치 수출방안을 포함한 김치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본 대책에는 중국 프리미엄 김치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물류유통 지원체계 등이 담길 계획이며, K-food Fair(시안, 충칭)와 식품박람회, 문화원 내 김치홍보관 확대, 한류 스타·드라마 등을 활용한 한국 김치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전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위생기준이 개정되면 13억 5천만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식품기준 부조화로 인한 수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T, 美 명문요리학교 CIA와 한국식품 요리 경연대회 열어

- 미국 내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요리법 개발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미국 최고 요리학교인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이하 CIA)와 연계하여 지난 10월 26일 한국 농식품 활용 요리경연대회인 "Korean Sensation Culinary Contest"를 CIA 캘리포니아 나파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 이번 요리 경연대회는 한국식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컨셉의 요리와 레시피를 개발하고, 미국 식단에도 한국식품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산 불고기 소스, 고추장, 유자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200여개가 접수되었다.
- CIA 나파캠퍼스에서는 예선전을 걸쳐 선발된 다섯명의 결승 진출자가 미국의 주요 미디어와 요리관련 블로거, CIA 학생 및 관계자 앞에서 자신의 요리를 직접 시연하고 평가받는 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 김치크로니컬의 주인공 마자 봉게리히텐(Marja Vongeritchen)과 뉴욕 맨하탄의 한식당 오너셰프이자 2014년도 마스터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이었던 김훈이(Hooni Kim)씨가 심사위원으로 CIA 교수진과 함께 참여해 한국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과 풍미를 심도 있게 평가했다. 특히 김훈이 셰프는 한국 고유의 식품이 갖고

있는 맛과 장점을 CIA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특별세션을 진행하여 CIA 학생들과 현지 미디어들이 한국식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 이번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스테판 뉴먼 (Stephen Neumann)의 양치기 파이 (Yangchigi Pie)가 한국식품 김치, 불고기소스의 맛과 풍미를 잘 살리고 기존 요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1위를 차지했다. 최종 결승에 오른 5명의 요리법도 aT USA 한국식품 블로그인 TastyKFood.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aT 유충식 수출이사는 “한국식품이 미국에서 소비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 요리법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CIA와의 한국식품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차세대 셰프들에게 한국식품을 소개하고,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함께 개발해 미국 내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 외식업체, 베트남 외식시장을 공략하다!

- aT, 베트남 호치민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참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하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박람회(Vietnam International Retail & Franchise Show)’에 참여한다.

- 이번 베트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는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 온 스위트몬스터, 서래갈매기 등 특색 있는 신규 외식기업 총 7개가 한국관으로 참가해 한국 외식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 참가에 앞서 aT는 베트남의 법률·제도·문화 등에 대한 현지시장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준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업체준비를 강화하였다.
- 정부는 국제 비즈니스 무대인 박람회에서 국내 외식기업들의 활약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외식문화의 글로벌 확산, 국내·외 일자리 창출 및 현지로의 외식식자재 수출확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aT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희망지역을 조사해 이를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aT 유충식 식품수출이사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은 형성단계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연평균 20~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라며, “aT는 앞으로도 베트남 및 동남아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중·소 외식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힘써 돕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이 지사, 中 칭다오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로 확대 모색

- 30일 aT물류센터 찾아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산둥성 칭다오시에 위치한 칭다오 aT물류센터(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물류센터)를 찾아 전남농수산물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칭다오 aT물류센터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가 대 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해외에 최초로 설립했다. 상온 및 냉동냉장식품 보관과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합 물류시설이다.
- 이 지사는 칭다오 aT물류센터에서 성광돈 법인장으로부터 물류센터의 기능과 시설 등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현지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래 관행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과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경쟁해야 한데 공감하고, “전남 농산물은 가공유통분야에 상당히 취약한 만큼 유통 관계자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 지사가 칭다오 aT물류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부터 주춤함에 따라 현지의 농수산물식품 유통 실태와 물류시설을 직접

파악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국 수출 확대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식품 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이 지사의 칭다오 aT물류센터 방문을 계기로 경쟁력이 높은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식품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의 현지 거래선 확보와 통관 등 관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전남 출신 현지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 출처 : 전라남도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소면적 재배작물 농산물인증 시비기준 마련

- 표준시비량이 설정되어 시비처방서 발급 가능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적합한 토양 양분관리와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표준시비량을 설정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2개 작물에 대해서 시비량 설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재배작물은 표준시비량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비처방서 발급과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들은 작물의 특성에 따른 시비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의 토양관리 및 농산물의 인증업무에 애로 사항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소면적 재배농가의 시비방법과 토양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토양양분이 일반적인 권장수준보다 높고 염류가 집적된 토양이 많아 적합한 시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내년까지 1차적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79%를 차지하는 밭과, 학교급식 등에 주로 이용되어 친환경재배 비율이 높은 청경채와 아욱에 대한 시비량 설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친환경연구소 김선국 연구사는 시비량이 설정이 되면,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토양 양분함량을

분석해 적정 시비처방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는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GAP), 저탄소농산물 등의 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토양관리 및 작물의 지속적인 안전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수경재배가 가능한 연녹색 애호박 품종선발

- 별 수분이 가능하고 줄기 유인노력이 적으며 저온에 강해 생산비 절감 가능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겨울철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줄기가 짧아 줄기 유인노력이 적으며, 별 수분이 가능해 친환경 생산이 가능한 폐포계 애호박 품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우리 도내에서 재배되는 애호박 품종은 대부분 덩굴형 모사타계 품종을 사용하고 있어 3일 간격으로 줄기를 유인해야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에 별 수분이 어려워 인공 착과제를 사용해야하는 점 때문에 친환경인증이 어려워 친환경 재배도 어려웠다.
- 반면 이번에 선발된 유럽계통의 폐포계 애호박은 국내 애호박과 달리 겨울철에도 암꽃과 수꽃의 성숙이 잘 이루어져 별 수분이 가능하고 줄기가 짧아 유인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외에 원산지가 북아메리카로 저온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비 절감도 가능하며 국내에서 재배되는 애호박과 색깔과 모양, 맛, 품질에서도 비슷하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유럽계 폐포종 애호박(미국명 : 쥬키니) 품종 중에서 연작장해에 구애받지 않고 수경재배가 가능하며, 맛과 과의

단단하기가 비슷해 국내 소비자 입맛에 잘 맞고, 샐러드, 스프, 튀김, 찌개, 전 등 다양한 동서양의 요리가 모두 가능한 유럽계 품종으로 『포벳』 등 2품종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 애호박은 전남의 특화 소득작목의 하나였었다. 2009년 애호박 재배면적은 333ha로 전국의 11%를 점유하였으나 2014년에는 197ha로 136ha가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 농업인의 고령화와 비닐 하우스 안의 고온다습한 열악한 조건과 악성노동으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호박을 찾는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번에 선발된 애호박 품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좋은 품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전남의 주요 소득 작물이었던 애호박 재배면적을 회복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과 유기재배 기술개발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친환경축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이용 확대 해야

- 전남 농업기술원,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공동 심포지엄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과 전남 친환경한우산학협력단(단장 순천대 이상석 교수)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국제농업박람회)에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 최근 경제전반의 장기불황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가 위축되고, AI 등의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물 소비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최대의 관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련업계 전문가와 축산업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정보공유와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
- 전남친환경한우산학연합력단장 이상석 교수는 축사내 악취감소,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형 사육기술과 생산비 절감기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 구축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최경주 원장은 “생명의 땅 전남”을 슬로건으로 친환경축산을 적극 추진하자고 했고, 국립농업과학원 유재홍 연구사는 ‘미생물 복합균을 이용한 축산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주)빅바이오젠 송인근 소장은 ‘유용미생물제 및 발효사료 적용을 통한 농축산 생산성 향상’에 대해, 경상대학교 김삼철 교수는 ‘조사료의 저장성 개선을 위한 미생물 적용기술’에 대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김대성 지도사는 ‘친환경 미생물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건국대학교 김수기 교수는 좌장을 맡아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 특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전남친환경한우산학연합력단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축산경영인 육성을 위한 영·호남 청년 심포지엄”을 10월 28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보리쌀도 칼라시대, 해남지역에 재배단지 조성

- 신품종 ‘흑수정찰보리’ 통상실시권 협약으로 생산기반 조성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해남 「한맥연구회」를 중심으로 검정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보리는 국민생활이 어려웠던 시대에 식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쌀 등 식량 자급율이 높아지면서 차츰 소비량이 감소되고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재배면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리는 겨울철이 온난한 전남의 벼 후작물로 중요한 소득작물이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혼반용 뿐만 아니라 가공용 제품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 보리는 베타글루칸, 전분, 단백질, 섬유소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B군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보리쌀은 흰색 또는 황색이지만 최근에는 검정색, 청색의 보리가 개발되고 있다. 검정색 등 색소를 가진 보리는 안토시아닌 등의 기능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도 가공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 맥류의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도입된 검정보리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지만 찰기가 없고 품종 순도가 낮아 수량성 및 품질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9개 유색보리 품종을 시험재배 한 결과 2014년에 개발한 「흑수정찰보리」가 수량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해남 「한맥연구회(대표 김성용)」에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농촌진흥청과 협약토록

하였다. 이번에 협약한 「흑수정찰보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국내 최초이며 2015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년 동안 16,900kg의 종자를 생산, 판매, 증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식량작물연구소 박홍규 소장은 고품질 유색보리가 특화재배단지 조성에 의한 지역소득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별하고 도복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영유아용 ‘유산균 발효 곡물스낵’이 나왔다.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그레인스낵’, ‘두부스낵’, ‘통곡물 푸레이크’ 출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곡물을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영유아용 스낵과 직장인들의 식사대용 시리얼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 순천 ‘온새미로’ 양희철(36)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통해 ‘그레인스낵’ 14종, ‘두부스낵’ 3종, ‘발효효소 통곡물 푸레이크’ 1종을 출시했다.
- ‘그레인스낵’은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미, 찹쌀, 찰보리, 서리태 등 18종의 곡물을 신비의 식물로 알려진 ‘구아바’와 함께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고, 치즈, 카레, 브로콜리, 시금치, 표고버섯 등 14가지 재료를 첨가하여 맛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등 타제품과 차별화 했다고 밝혔다.
- ‘두부스낵’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술안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하였다. 일반적으로 스낵 제품은 기름에 튀겨 만드는데

양 대표는 기름을 빼는 기계를 개발하여 스낵에 기름을 제거하고, 제조장치와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 했다. 또한 스낵판매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두부아저씨’란 상표도 개발했다고 말했다.

- 또한 직장인의 식사대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유에 바로 타먹을 수 있는 한국형 발효효소 시리얼 1종도 개발했다. 양 대표가 이번에 출시한 ‘발효효소 통곡물 푸레이크’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고온에 구워낸 방법으로 곡물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장치 및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순우리말 ‘온새미로’를 업체 이름으로 내걸고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 대표.
- 그는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관광농장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제품으로 만드는 체험학습형 농장으로 만들어 가는게 꿈”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알이 크고 수량 많은 땅콩 '다안' 개발

- 병해와 쓰러짐에 강해 재배 안정성 뛰어나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재배안정성이 뛰어나 땅콩 알이 크고 수량이 많은 새 품종 ‘다안’을 개발했다.
- 그동안 개발·보급한 신품형 땅콩들은 성숙 후기에 키가 커 쓰러짐과 병해에 약한 편이다.
- 이번에 개발한 땅콩 ‘다안’은 줄기 길이가 44cm로 작은 편이어서 쓰러짐과 병해에 강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기계 수확에도 좋다.

- 땅콩 수량은 10a당 500kg으로 대비 품종인 ‘대광’보다 16% 많고 신품형 품종 중 수량이 가장 많다. 100알의 무게도 ‘대광’보다 40g이나 더 무거운 127g으로 알이 큰 편이다.
- 수확량이 많으려면 수확기까지 병해 없는 싱싱한 잎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품종은 낙엽병인 갈색무늬병, 검은무늬병, 그물무늬병, 성숙 후기에 포기째 말라죽어 수량 감소가 큰 흰비단병에 강하다.
- ‘다안’ 땅콩은 올해 종자 증식을 거쳐 2016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배석복 박사는 ‘다안’ 땅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알이 굵은 품종으로 땅콩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세계 최초 곤충의 심리치유 효과 밝혀

- 왕귀뚜라미가 노인층의 우울증과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 “왕귀뚜라미 돌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왕귀뚜라미 기르기가 노인들의 우울증과 인지 기능 개선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신 심리 검사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하고 이를 관련 저명 학술지(Gerontology)에 게재했다.
- 이번 연구에 이용한 왕귀뚜라미는 초보자들도 손쉽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최근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연중 맑고 고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귀뚜라미를 키우며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애완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고려시대에는 궁녀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귀뚜라미를 길렀고, 이것이 대중에도 유행처럼 퍼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에도 귀뚜라미는 시어(時語)나 노랫말에 자주 등장했던 친숙한 곤충이다.
-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귀뚜라미가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학술적으로 입증한 것은 처음이다.
- ‘왕귀뚜라미 돌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경북대학교 병원과 함께 심리적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귀뚜라미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및 의학적 측면의 변화를 조사했다.
-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왕귀뚜라미를 2개월간 돌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체험하지 않게 한 다음 다양한 정신심리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체험군은 비체험군에 비해 우울증 지수가 3.9에서 3.1로 크게 낮아진 반면, 인지 기능 지수는 26.7점에서 28.1점으로 높아졌고, 정신적 삶의 질(건강관련) 지수 또한 73.4점에서 78.3점으로 상승했다.
- 2차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실험 전과 후, 대상자들의 인지 기능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체험군은 비체험군에 비해 집중에 관여하는 뇌 부분 활성화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영상촬영 중 수행하는 임무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돌보기와 마찬가지로, 곤충을 키우고 돌보는 일련의 활동이 개인의 정신과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 특히, 정신적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노인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인지 기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국립농업과학원 강필돈 과장은 “다양한 곤충을 여러 연령층에 확대 적용해 곤충의 심리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이번 성과는 곤충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최적의 2모작 재배 조합 발굴해 농가 소득 높인다

- 농촌진흥청, 중부 지역 적응 소득형 심기차레 거점단지 확대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중부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 지역 적응 소득형 심기차레(작부체계) 거점단지’를 추가로 발굴해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중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아 작물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모작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이모작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맞춤형 실용화 종합 기술을 개발·보급해 2013년부터 충북 괴산, 경기 안성 2곳에서 중부 지역 심기차레 거점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 충북 괴산은 전국 최고의 논 콩 주산지로 ‘대원’ 품종으로 단일화하고, 작형별 콩 파종 시기를 밝혀 수량성을 높였다. 감자·옥수수·배추+콩 재배 조합을 개발해 콩을 대체작물이 아니라 소득작물로 인식하는 변화를 이뤘다.
- 그 결과, 쌀 또는 콩만 재배했을 때는 10아르당 각각 53만 원과 56만 원이었지만 ‘감자+콩’은 11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았다.
- 경기 안성은 ‘대풍’, ‘청자3호’ 콩 품종을 재배하고 논 재배

새 기술을 투입해 수량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두둑 형성·피복·제초 등 동시 작업 농기계 기술 투입으로 벼 대체 수익형 감자·양파+콩 2모작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확대했다.

- 그 결과 재배 조합이 2010년 6개에서 현재 18개 유형으로 다양해졌으며 특히, 최근 4년 동안 안성의 2모작 재배 면적은 21.5배(10헥타르→215헥타르) 이상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보다 다양한 2모작 재배 조합을 발굴해 거점단지를 확대하고자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경기, 강원, 충북 7개 시군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모작 재배 농가 유형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논에서는 주로 조사료 생산과 소득 증대가 목적이었으며, 강화, 정선 지역에서는 벼+보리·호밀을 재배하는 곳이 많았다. 괴산, 안성 지역에서는 봄감자·옥수수·무+콩, 옥수수+배추·브로콜리·적채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다.
- 밭에서는 소득 증대를 위해 봄감자·옥수수+콩·들깨·무·배추와 같이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을 결합한 재배조합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은 심기차례 실천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기후, 토양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모형 개발과 특성화로 중부 지역 적응 소득형 작부체계 거점단지를 2020년까지 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김성국 박사는 “중부 지역 최적 작물별 재배 조합을 개발해 6차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거점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동향

◆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로 품질 높인다

- 전남도, 품질 향상안전보관 위한 워크숍 -

- 전라남도는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에서 정부양곡 도정공장 대표, 시군 관계 공무원, 양정 관련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양곡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효율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전남쌀은 (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돼 그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정부양곡 분야에서도 최고 양질의 정부양곡을 공급토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정부양곡의 운영 방안과 품질 향상 방안, 안전 보관 요령 등 관계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특히 올해는 정부양곡 품질 향상을 위해 가공공장 운영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가공기술분야와, 보관창고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분야가 추가돼 진행됐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정부양곡 운영 방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연구소 전문가의 정부양곡 품질 향상 방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의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 농정 방향과 전남산 유기농 쌀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양곡 품질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를 양곡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부양곡 품질 향상 및 전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2016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상황실 운영

- 전남도, 종합대책 수립해 저수지 물 채우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 전라남도가 2016년 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 대비 농업용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중부 지방에 비해 다소 양호하나, 올 봄 가뭄에 이어 장마철 또한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 27일 현재 누적 강수량은 1천 55mm로 평년(1천 367mm)의 77%에 그치고 있다. 저수율은 47%로 평년(62%)보다 저조해 2016년 영농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16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하는 5월 말까지 농업용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연말 준공 예정인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가뭄대책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담수를 실시하고, 해빙기 이후 농경지 주변 하천과 배수로 등에 물 가두기를 실시해 사전에 농업용수를 저장할 계획이다.
- 또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하천과 관정에서 양수해 저수지를

미리 채우기로 했다.

- 영광 불갑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36%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돼 간접유역인 장성 대도천에서 양수작업을 실시해 물을 채우고 있으며, 물이 부족한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물 채우기를 확대키로 했다.
- 또한 11월 1일부터 가뭄상황 관리 및 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영농기 가뭄이 심각할 경우 들샘, 하상 굴착, 관정개발 등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군부대, 소방서,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인력장비 동원을 통한 총체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가뭄 극복을 위해 191지구에 85억 원을 들여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10.29자로 개정 공포되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이번 과태료 기준 강화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고,
-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네덜란드, 유기농식품 전문 매장 확대

- 네덜란드 경제부에서 실시한 2013년 유기농식품 소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식품 판매의 60%는 일반 소매상이며, 나머지는 유기농식품 전문점이 차지함.
- 네덜란드는 유기농식품 소매판매에서 유기농식품 전문 소매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2013년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은 8억 4000만 유로로 유럽국가 중 10위를 차지함. 또한 2013년 유기농식품 소매판매 성장률은 5.4%이며, 유럽국가 중 7위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유기농 슈퍼마켓 최대 가맹점인 EkoPlaza는 매장 면적을 확장하였음. 2010년 EkoPlaza 매장의 평균면적은 약 219m²이었으나, 2014년은 441m²로 약 2배 규모를 확장함. EkoPlaza 이외에 다른 유기농 슈퍼마켓인 Marqt의 매장 평균면적은 2010년에 비해 2014년 300m²에서 400m²로 확장되었으며, Estafette는 250m²에서 277m²로 확장되었음.
-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EkoPlaza와 Marqt가 유기농 슈퍼마켓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임. EkoPlaza는 5년 만에 매장 수가 20배 넘게 증가하였음. EkoPlaza의 모회사인 Udea는 유기농식품 도매상으로 채소, 과일,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유기농식품을 베네룩스 지역 소매상에 공급하고 있음.

- 반면, 체인이 아닌 소규모 유기농식품 소매점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거나 EkoPlaza 같은 대형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에 흡수됨. 네덜란드의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점 수는 2010년 총 72개에서 2015년 10월 약 2배에 가까운 148개로 증가하였음.
- EkoPlaza는 유기농, 친환경 농식품만을 취급하고 있음. 타 체인에 비해 자체 브랜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취급하는 모든 제품이 유기농임. EkoPlaza는 좋은 위치에 콩, 곡류를 배치하며, 자체 브랜드 콩 통조림 종류는 10가지 이상임. 또한 유기농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을 포함하여 여성들을 위한 유기농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음.
- 유기농식품 매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보임. 금년 10월, 새로 개점한 Gelderlandplein 지점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에코 장바구니를 판매하고 있음.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하여 병 값만 지불하면 수돗물은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함. 또한 화폐사용 시, 조폐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현금사용 보다는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금년 4월부터 자체 상표인 유기농 글루텐프리 라인을 신설함. 자체 상표 글루텐 프리 가루 상품에는 코코넛가루, 쌀가루,オート밀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팬케이크 가루, 케이크 믹스가 있음.
- 유기농식품 매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자전거 앞에 달 수 있는 박스(크레이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 Marqt의 박스를 자전거에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함. 이는 Marqt 박스를

자전거 앞에 부착하여, 자신이 지속가능한 유기농식품을 구매하는 트렌디한 소비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도 다양해짐. 그 중 Marqt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를 보이고 있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4만 3,200명이 Marqt 소식을 받아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과 성향을 분석하고 신상품 홍보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음.
- 네덜란드 일반 슈퍼마켓에는 아시아 식품판매대가 있는데 대체로 유기농이 아닌 일반식품임.
- 유기농식품 매장은 아시아 식품코너를 더 비중 있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 슈퍼마켓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쌀과 일본 식품을 판매하고 있음. 금년 10월 중순부터 일반 슈퍼마켓인 Albert Heijn에서 고추장, 된장, 찜장, 불고기 양념, 부침개 가루 판매를 시작했으나, 유기농 슈퍼마켓에서는 아직 한국 식품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유기농식품 전문매장에서는 유기농식품 이외에도 건강식품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음. Marqt에는 글루텐 프리 자체 브랜드가 있으며, 7가지 글루텐 프리 밀가루 상품과 글루텐프리 과자 6가지를 선보임.
- EkoPlaza에는 카뮈카뮈 파우더, 스피룰리나 파우더, 클로렐라 파우더, 보릿가루, 아사이베리 파우더, 루쿠마 파우더, 치아 시드, 건조 고지베리 및 각종 견과류를 슈퍼푸드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음. 또한 구아라나,

마카,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등이 들어간 슈퍼푸드 스무디파우더 또는 아몬드로 만든 비건 단백질파우더도 취급함.

- 일반 슈퍼마켓의 동일제품일 경우, 유기농식품 전문매장의 식품 가격이 다소 비쌘. Marqt의 대표 Quirijn Bolle는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가격이 기존 슈퍼마켓보다 높을 수는 있으나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함.
- 반면 몇몇 제품은 일반 슈퍼마켓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도 함. 유기농식품 중 사과, 루이보스 차, 우유 등은 일반 슈퍼마켓보다 유기농 슈퍼마켓에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증가로 올해 10월부터 네덜란드 슈퍼마켓 중 가장 많은 체인을 보유한 Albert Heijn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그러나 한국 식품이 네덜란드 유기농 슈퍼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맛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만, 식품관리규정 강화

- 대만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원산지증명서 등 식품관리규정이 강화됨.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食品追溯追蹤系統之食品業者)이 실시되며 식품이력이 투명해야 수출이 가능해짐. 또한 식품영양성분 및 라벨링규정과 식품성분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함.

- 기존보다 처벌은 10배 더 강력해짐.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 관리서는 2014년 ‘쓰레기 식용유’ 식품과동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식품안전법 처벌강도를 높였음.
- 지난 3월 대만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일본식품의 원산지가 조작되어 수입되는 사건이 있었음. 이에 원산지표시가 강화됨.
-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수산물, 차잎(茶葉), 영아식품 등 3분류 800품목이 넘는 ‘고위험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와 일본정부나 국제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방사선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 대만당국은 일본식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수입량이 기존보다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대만으로 농산물 및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식품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국내 수출업체는 기반을 갖춘 미국, 유럽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며, 필요한 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만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함.
- 또한 철저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만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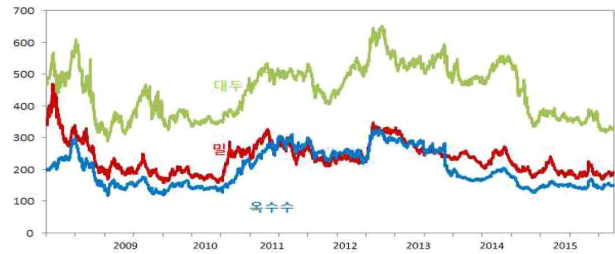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1. 2.(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가격 최근 4개월래 최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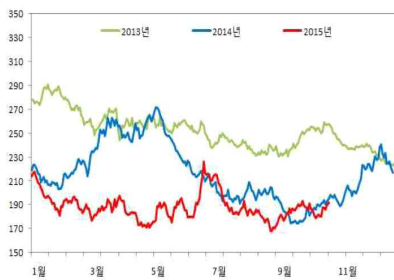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0.3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9)	2014 평균
밀	191.80	▲1.4%	179	216
옥수수	150.47	▲0.6%	147	164
대두	324.66	▲0.6%	324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의 건조한 기후와 미국 농무부(USDA)의 11월 수급보고서에 앞선 거래자들의 우려로 4개월래 최고가격을 갱신하며 상승 마감함. 미국산 밀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좋은 것도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음. USDA는 2015/16 마케팅 연도 밀 수출이 약 55만톤으로 집계된다고 보고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장중 박스권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전일 거래의 상승 영향과 수출 수요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함. 옥수수 풍작이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서부 내부 현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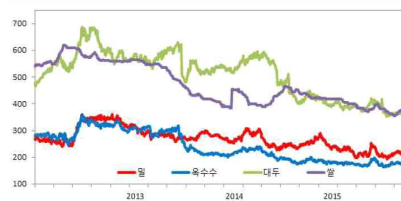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밀, 옥수수 상승과 함께 엽가 매입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주간 및 월간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됨. 브라질의 대두 착황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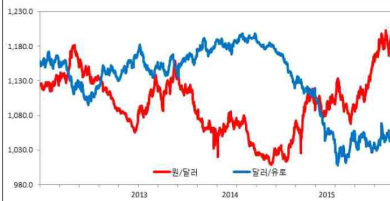
관련동향

- 공급 풍작과 중국 매입 관심에 대한 우려로 대두 수출가격 하락
- 국제유가는 미 원유시추기 수 감소, OPEC 생산량 감소 추정,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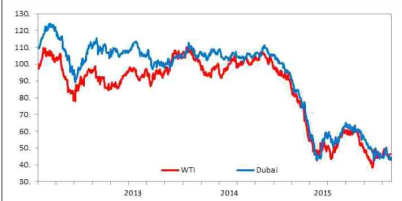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0	환율	원/달러	1142.3
	옥수수	179		달러/유로	1.0984
	대두	355	국제유가 (US\$/B)	WTI	46.59
	쌀	366		Dubai	43.9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0.29(수출가격), '15.10.30(환율), '15.10.3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우리 생활 속의 식품영양성분」 농업과학관 특별전시

○ 목 적

-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가치와 농촌진흥청 이미지 제고

○ 전시 개요

- 주 제 : 『우리 생활 속의 식품영양성분』
- 기 간 : 2015. 10. 27. ~ 11. 9.(2주간)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특별전시관

○ 내 용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의의/역사/생산과정 및 생활 속의 활용
- 정부 정책/국민 식생활/건강 관리/교육/IT 융복합 속의 식품영양성분
- 체험 : 앱, 게임, 식생활 진단, 채소 풍선 색칠하기 등
- 전시공간 : 80m²

○ 기대효과

- 국민들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국가표준식품성분 DB의 활용성 증대

◆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KOFEX 2015)

○ 행 사 명 :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KOFEX 2015)

○ 일 시 : 2015. 11. 18.(수) ~ 11. 21.(토) 10:00~18:00

○ 장 소 : 코엑스 A4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전시회, 시연 및 체험, 부대행사, 이벤트



주간

전남농업정보

5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